금주의 법구-〈법구경〉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정진하는 이는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7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12호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호국불교 무시하는 정부 '호국의승의날' 제정 잰걸음

조계종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 자료집 발간… 각계 제정 목소리 높아

불교계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호국의승의날' 제정이 정부의 반대 속에 표류하고 있다. 조계종의 정무적 접근과 함께 불자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은 8월 17일 〈호국의승의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는 자료집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제정 활동에 나섰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호국의승 제향

호국의승의 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데 온 몸을 바쳤지만 역사에서 소외된 '의승(義僧)' 들을 기리는 날이다. 1789년 10월 15일 표충사 호국의승 제향을 기반으로 10월 15일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는 임진왜란의 서산, 사명, 처영, 영규, 희묵대사 등 수많은 의승군들을 비롯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 축조 및 방어, 독립군 지원활동 등 '호국불교' 활동을 펼쳐왔다. 전쟁 참여가 계를 파하는 일이라는 비난에도 나라를 지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럼에도 의승군을 조명하는 일은 불교계 내에서 산발적으로만 이뤄져 왔다. 현재 의승군을 기리는 제향, 추모재, 수륙재를 봉행하는 사찰은 해남 대흥사(4월 서산대재), 밀양 표충사(10월 사명대전), 공주 갑사(10월 영규대사 대재), 정읍 내장사(6월 희묵대사 다례재), 구례 화엄사(10월 칠의사 의승병 제향) 등 15곳에 달한다. 하지만 의승군 전체를 총괄하는 국가나 종단차원 기념의식은 없는 실정이다. 〈표 위〉

조선시대까지 진행된 의승군에 대한 국가행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맥이 끊겼다. 이에 조계종은 2014년 6월 2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 종단 산하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 8월 호국불교 1차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승장 및 의승군 활동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 · 발굴해 〈한국 호국불교사찰 자료집〉 〈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자료집을 펴냈다.

조계종이 2014년부터 1년간 전개한 호국의승의날 제정 서명운동에는 이미 6만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례적인 수준이다.

호국의승 기리는 불교 행사

해남 대흥사	호국대성사 서산대재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추모대재
공주 갑사	영규대사 및 800의승 추모재
정읍 내장사	희묵대사 추모다례재
여수 흥국사	임진왜란 의승수군 수륙재
구례 화엄사	칠의사 항일의병 제향
금산 보석사	영규대사 추모재
옥천 가산사	영규대사 추모재
강화 전등사	삼랑성역사문화축제
부산 국청사	임진왜란 의승군 천도재
고성 운흥사	의승군 추모영산재
남한산성 장경사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
부산불교연합회	사명대사 추모재

정부 관심 없어 산발적 제향
일제시대 맥끊긴 후 복원 미흡
정부 "기념일 많아 제정 곤란"
교과서 내 의승군 내용 누락

불교계 6만3000여명 서명
자료집 발간 등 2년째 추진
"승려독립운동가 등 포함해야"

이다.

호국의승, 의병과 성격이 같다?

하지만 정부는 호국의승의날이 의병의날과 성격이 유사해 기념일 제정을 미뤄왔다. 의병의날은 2010년 5월 제정된 바 있다.

기념일 제정과 예산 배정 등을 담당하는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김영곤 사무관은 "의승군의날은 의병의날 등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현재 40여개에 달하는 기념일이 있고, 또 각계에서 기념일 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기념일 제정 필요성은 공감했다. 문체부 종무실 신용선 사무관은 "의승군의날은 호국불교를 상징하는 날로 불교계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계종 등의 요청을 받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측은 자료집을 통해 "혹시 호국의승의날 제정이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편향정책으로 본다면 승려라는 이유로 의승군의 공훈을 정당히 평가하지 않은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적인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승군에 대한 역사교육도 누락되고 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6종 중 의승장의 이름을 본문에 소개한 경우는 단 1종(비상교육 교과서)에 불과하다. 승려의 의병 가담 사실을 본문에 명시하는 교과서는 모두 3종으로 나머지 2종은 지도 속에 서산대사와 사명당을 적시할 뿐이다. 교과서 1종의 경우 지도조차 없어 이 교과서로 배우는 학생들은 호국의승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주현 조계종 대외협력실 팀장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승군은 잊혀지고 말것"이라며 "행자부 측에서 호국의승, 호국불교 기념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국민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 관심있는 국회의원과 불자들의 입장을 모아 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국의승의날 제정을 독립운동까지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불교사회연구소 박미경 선임연구원은 "2019년 3 · 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2017년부터 연구활동을 진행한다. 일제강점기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기리는 사업"이라며 "호국의승 범주에 승려 독립운동활동도 포함시켜야 호국의승의날 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청년들이여, 사찰에서 희망을 보라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희망캠프를 열었다. 취업, 결혼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휴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과 해인사 스님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제 28차 WFB 서울총회, 9월 27~29일까지

주제는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

학술포럼 · 선언문 채택 등 다채
참가자 도라전망대서 평화발원

진각종 종조인 회당 대종사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창하며, 1958년 태국 방콕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총회에 참석한 지 58년 만에 대한불교 진각종이 'WFB 서울총회'를 개최해 주목을 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 종로 AW컨벤션센터와 하월곡동 총인원 일대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주제로 제28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서울총회를 연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제19차 세계청년불자우의회 서울총회와 제10차 세계불교대학 서울총회도 함께 봉행된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8월 23일 총인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회의 주제는 진각종 회당 대종사의 종교적 실천이념을 담은〈실행론〉에 적힌 '생활 밖에 불법이 없고, 불법 밖에 생활이 없다'는 내용과 맥락을 함께 한다"며 "올해 진각종 창종 7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대사회적 역할을 재고하는 데 있어서 이번 총회는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의 공식 행사는 27일에 WFB 대표자회의(AW컨벤션센터), WFB 서울총회 개회식(진각종 총인원), 공식 환영만찬 및 문화공연 순으로 시작한다. 특히 2부 축하연설에서는 참석한 각국 WFB 지도자 10여 명이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3부 문화공연에서는 '미래를 향한 5가지 진각의 서원과 메시지'를 주제로 작곡가 김희경 씨를 비롯해 타악그룹 야단법석 등이 전통 국악과 무용, 퍼포먼스, 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28일에는 1차 전체회의 및 상임위원회 분과회의, 2차 전체회의, '봉사를 통한 생활불교의 실현'을 주제로 불교복지봉사포럼이 열린다. 마지막날인 29일에는 '현세정화와 밀엄정토'를 주제로 한 WFB 학술포럼과 폐회식 및 선언문 채택, 도라전망대, 판문점 문화답사 등이 마련된다. 특히 판문점에서는 전 세계 불교지도자들이 세계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발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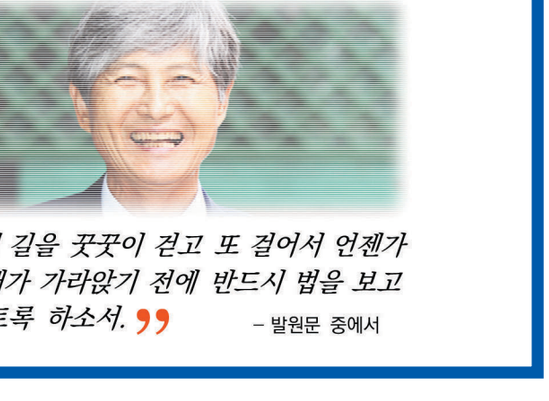
한편 WFB는 국제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 아래 종파를 초월해 1950년 스리랑카서 창립한 지구촌 최대 불교협의체다. 50개국 250여 불교단체가 동참하며, 2년마다 총회를 열어 세계 불교도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특히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WFB 총회가 우리나라서 열린 것은 1990년 제17차 서울총회, 2013년 여수총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김주일 기자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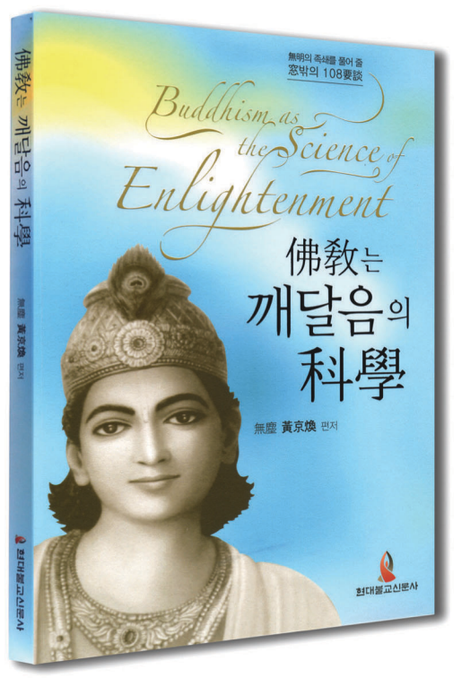
본사 사옥 이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신사옥을 마련해
8월 26일 이전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근본불교의 마르지 않는 샘에서 길어올린 영원한 자유인의 길



무진 황경환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주문
054)744-8211~2
팩스
054)744-8213

無明의 족쇄를 풀어 줄 窓 밖의 108 要談
佛敎는 깨달음의 科學
Buddhism as the Science of Enlightenment

황경환은 하늘이 손수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가 펴낸 수상집(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의 원고를 읽어 보며 불교의 참뜻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나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가 원효나 의상 같은 고승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칸트나 헤겔 같은 논리를 가졌다는 말도 아니지만, 신라의 옛 서울에 터를 잡고 작은 사업을 하나 일으켜 최선을 다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본받으려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인간 황경환의 모습이 아름다워 이 글을 쓰는 바이다.

–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무진 황경환 선생이 엄선한 주옥같은 108요담을 읽다보면, 많은 경전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전에 대한 깊은 통찰에도 새삼 옷깃을 여미게 된다.
– 퇴현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대표)

이 책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특기할 만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근본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다. 그가 인용한 불설은 주로 5부 니까야라는 문헌인데, 부처님의 초기 음성에 대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이다. 둘째는 불교 사상의 현대적 해석이다. 과학적 지식이나 사회적 요청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풀어쓰려고 하는 노력이 값지다. 따라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겠고, 또 익숙하게 불교적 신행에 젖어 있는 분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鄭柄朝 (동국대학교 교수, 전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거친 4해(四海)를 오온(五蘊)의 쪽배 타고 노젓는 뱃사공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파(世波)가 그대 앞에 닥친다 해도 그것에 정복되거나 주눅들지 않고 오직 이 길을 꿋꿋이 걷고 또 걸어서 언젠가 그대가 의지하고 있는 오온의 쪽배가 가라앉기 전에 반드시 법을 보고 법을 알아 도(道)와 과(果)를 성취토록 하소서."
– 발원문 중에서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총판 운주사 02-3672-7181